

주체영화예술창작거점을 잘 꾸리도록 이끄신 위대한 령도

김 창 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영화예술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화예술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영화부문 작가, 예술인들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기관, 기업소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선집》 제3권 증보판 514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영화예술의 물질적토대를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어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영화예술창작을 위한 거점을 잘 꾸리도록 이끄신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예술영화창작기관들과 영화촬영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도록 하신것이다.

영화예술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물질적토대가 확고히 담보되어야 한다.

영화예술의 물질적토대가 없이는 영화예술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조선영화문학창작사청사를 현대적으로 잘 꾸릴데 대한 발기를 하시고 그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예술영화부문사업을 맡아 지도하시던 첫 시기부터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문학을 창작하려면 작가들에게 좋은 창작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문학작가들의 창작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마련

해주기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1(1972)년 2월 영화문학창작사청사를 현대적으로 확장보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창작사를 현대적으로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영화문학창작사청사를 꾸리는데 드는 강재와 세멘트, 목재만 하여도 막대한 량이 있어야 했고 건설로력만 하여도 수백명은 있어야 하였다. 더우기 청사건설에서 보다 절실히 필요한것은 유능한 건설전문가들과 기능공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건설조건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영화문학창작사건설을 나라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문학예술부문의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낄것을 결심하시고 영화예술인들격대를 무어 파견해주시었다. 그리고 유능한 건설전문가들과 기능공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원로력을 보내주시였으며 건설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은 은정에 떠받들려 작가, 예술인,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충정의 전투를 벌림으로써 영화문학창작사청사를 불과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1월 새로 꾸린 영화문학창작사를 찾으시고 작가들이 새 청사에 들면 좋은 영화문학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용이 있는 집인것만큼 들어가는 사람들도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크나큰 신임과 믿

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술영화의 다른 부문보다도 먼저 영화문학창작사청사를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도록 하시어 영화문학창작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영화문학작가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신들의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영화문학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창작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 토대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하시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영화촬영소를 지도하시던 첫시기에 벌써 촬영소를 가장 현대적인 창작설비를 갖춘 예술영화창작기지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보통 3~4년은 걸려야 완공할 수 있는 방대한 예술영화촬영소건설을 7~8개월 동안에 끝내기로 결심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건설하시면서 영화예술인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1월에 하신 말씀에서 예술영화촬영소건설이 방대한것만큼 자재들을 우에서 풀어줄 것만 바라지 말고 지난날 촬영소일꾼들이 건설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뛰었던것처럼 이번에도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촬영소와 문화예술 부문 기관,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는 한편 예술인들로 촬영소건설을 담당할 기본력량인 10월 30일건설련대를 무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촬영소건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건설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촬영소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2월 촬영소형성도안과 설계도안작성사업을 지도해주시면서 우선 형성도안부터 대담하고 통이 크게 만들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하시었다. 그리고 주체62(1973)년 2월에는 촬영소에 친히 나오시어 건설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주시고 공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소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촬영소건설에서 제기되는 건설기자재들을 손수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자면 강력한 운수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수십대의 자동차로 기동대를 무어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많은 량의 강재와 수백t의 아연도철판 그리고 막대한 량의 세멘트와 철판을 해결해주시었다. 그것도 나라의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선과 황철, 김철과 성강, 마동과 해주, 북방의 립산사업소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절약하고 증산한것으로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적인 건축미와 최상의 창작조건, 생활조건이 갖추어진 청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떠서게 되었으며 촬영소로 들어오는 새로운 넓은 길이 생겨나고 21만㎡에 이르는 촬영소구내에 갖가지 화초와 잔디를 심어 예술영화촬영소는 자기의 면모를 일신시키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12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단계공사 준공식에 나오시어 건설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냈으니 다음단계의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술영화촬영소를 보다 훌륭하게 꾸릴 전망을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영화예술창작을 위한 거점을 잘 꾸리도록 이끄신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규모의 예술영화야외촬영거리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것이다.

예술영화야외촬영거리는 예술영화창작의 성과를 직접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예술영화촬영을 위한 촬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다보니 창작가, 예술인들이 지방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영화를 창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그로하여 예술영화창작에 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수많이 낭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규모의 예술영화야외촬영거리건설구상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9(1980)년 9월 혁명영화 《조선의 별》야외촬영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신께서 지난 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종합적인 예술영화야외촬영거리를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야외촬영장을 예술영화촬영소 뒤편에 건설하고 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환경을 잘 조성해놓으면 량강도와 같은 먼 지방에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장면들을 촬영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건설할 야외촬영거리의 부지와 규모, 건물들의 형식과 그 운영조건,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발기에 의하여 현대적인 예술영화야외촬영거리 1단

계건설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야외촬영거리의 1단계건설공사전반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야외촬영거리건설에 정무원(당시), 위원회, 부의 정무원들을 동원하며 건설에 필요한 중요설비와 자재들을 국가에서 해결하여줄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설후 야외촬영거리의 관리사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야외촬영거리는 건물총수 수십개 호동을 망라하는 1단계공사가 주체70(1981)년 12월에 끝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0(1981)년 12월 새로 건설한 야외촬영거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촬영거리를 더 확장할데 대한 문제 등 촬영소전반사업에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야외촬영거리를 돌아보시면서 새로 건설한 촬영거리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다고, 건설에 동원된 정무원,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과 평양시안의 여러 기관들에서 아주 큰 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공로자들을 크게 표창할데 대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또한 촬영거리에 기관차가 들어올수 있도록 철도인입선을 놓아줄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철도선건설을 철도부(당시)에서 맡아 해주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예술영화창작이 제기될 때마다 장치물들을 립시로 만들어쓰던 야외장치물제작의 기존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집 한채를 놓고도 창문과 벽의 형태를 달리하여 장면을 찍을수 있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믿음직한 촬영기지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야외촬영거리 2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리하여 야외촬영거리건설을 위한 정무원의 지시문이 시달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체계가 새로 서게 되었으며 정무원(당시),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과 평양시안의 여러 기관들에서 야외촬영거리건설을 돕기 위한 사회적지원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야외촬영거리 2단계건설공사는 주체71(1982)

년 12월에 완공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여러 나라 거리들과 마사, 철도인입선과 역전, 밀림지대, 야외말훈련장과 수중촬영장 등 수많은 건물들과 다양한 대상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떠받들려 현대적인 야외촬영거리가 훌륭하게 일떠섬으로써 우리 영화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